



‘2004 한국디지털콘텐츠미래포럼 정기총회’ DC업계 숙제 및 해결방안 공유

국내 DC업계 관계자 200여명 참석 ... 디지털콘텐츠 분야 최고 단체로서 면모 과시

지난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출범한 한국디지털콘텐츠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의 정기총회가 지난달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미래포럼의 남중수(KTF 사장) 의장을 비롯해 정보통신부 최준영 정보통신정책국장, 김하진(한림대학교 교수) 명예회원, 오해석(경원대학교 부총장) 부의장 등을 포함,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 대표기업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DC분야 국내 최고 단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총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글 / 신중훈 기자

국내 DC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2004 한국디지털콘텐츠미래포럼 정기총회’는 인하대학교 이대희 교수의 ‘DC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막을 올렸다. 이대희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저작권 관련 기술과 불법복제 현황, 기술적 및 법적 보호조치 유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저작권 관련 기술에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있는 반면 저작권을 해하기 위한 기술이 있다”며 “저작권을 해하는 기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지책으로 DRM, 서버 제공 및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집행, 설비제작자에 대한 DRM 요

구, 일반인에 대한 홍보 등 7가지 유형을 강조하며, 미국의 판례들을 소개했다.

DC인의 한마당 축제 ... 지난 1년 사업 정리한 동영 상 선봬

뒤를 이어 연단에 나선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는 ‘퍼스널미디어 혁명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진대제 장관님으로부터 주제발표시 연단에 서지 않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법을 배웠다”며 운을 뗀 현 교수는 “창립총회 후 1년이 지난 지금 모두들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현 교수는 “지금 시대에 맞는 DC모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의 진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제6정보혁명의 시기를 지나 모바일이 핵심이 되는 제7정보혁명의 시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시장에서 킬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기술적 우위가 시장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현 교수는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하는 다플랫폼 전략(COPE :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후 지난 1년간 미래포럼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보여주는 동영상 시연된 뒤 연단에 오른 남중수 미래포럼 의장은 “지난 1년간 모든 분들이 애써 주신 덕에 이 자리가 빛날 수 있게 됐다”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자”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최준영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최고의 디지털콘텐츠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미래포럼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를 건넸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최재유 정통부 전파방송총괄과장과 김하진 한림대학교 교수가 공로패를 받았고, 이리닝분과와 법제도분과가 우수분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